

2009년 식량과 채소 재배면적 증가 전망

후베이(湖北)성 어쑤(鄂州)시 농가를 대상으로 2009년 농산물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 식량작물과 채소 재배면적은 대폭 증가하고, 면화 재배면적은 대폭 감소하고, 유지작물 재배면적은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09년 농가의 농작물 재배 의향

- 식량작물은 재배면적은 5% 증가할 것임. 조사에 따르면, 2009년 농가당 평균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6.12무(畝)로 지난해 실제 재배면적인 5.37무보다 0.75무 증가할 것임. 그 중 조생종 인디카, 중생종 인디카, 만생종 인디카 재배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할 것이고, 만생종 자포니카의 경우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임.
- 채소와 과일 재배면적은 14.9% 증가할 것임.
- 유지작물 재배면적은 8.2% 증가할 것임. 2009년 농가당 평균 유지작물 재배면적은 2.33무로 지난해 실제 재배면적보다 0.24무 증가할 것임. 농가당 평균 유채 재배면적은 1.86무로 지난해에 비해 0.16무 증가할 것이고, 참깨 등 기타 유지작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0.16무 증가할 것임.
- 면화 재배면적은 12.3% 감소할 것임. 2009년 농가당 평균 면화 재배면적은 2.34무로 지난해보다 0.28무 감소할 것임.

□ 농가 농산물 재배 의사 변화의 원인분석

- 정부의 식량 생산 안정을 위한 일련의 정책조치가 농가가 식량 재배면적을 늘리는 직접적인 원인임. 2008년 정부는 식량보조금을 더욱 확대함. 예를 들어, 만생종 인디카의 우량종자 보조금은 1무당 15위안, 식량직불금은 1무당 9.90위안, 농자재종합보조금은 1무당 34.30위안, 보조금 총액은 59.20위안으로 지난해보다 30.70위안 증가함. 2008년 식량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정부에서 2009년 식량 최저수매가를 대폭 올릴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농가의 식량 재배 의욕을 고취시킴.
- 농산물 시장가격은 농가의 재배구조 조정의 중요 변수임. 2008년 면화 수매가격 하락은 면화 재배 수익성을 떨어뜨렸고, 결국 2009년 농가의 면화 재배 기피현상으로 이어짐.

- 농가는 수익성을 고려하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작물 재배를 선호함. 예를 들어, 땅콩과 깨는 생산비용이 낮고 종자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 앞으로 약 2년간 땅콩과 깨의 수매가격은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깨는 1kg에 11위안이고, 땅콩은 4위안으로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하여 농가들이 선호하는 작목임.
- 채소 재배의 수익성이 높아 도시근교 농가를 중심으로 채소 재배면적을 늘림. 채소는 생장 주기가 짧고 생산리스크가 작으며 수익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특히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 채소는 판로가 좋아 도시근교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음. 최근 채소 가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도시근교 농가들이 시장가격에 따라 자발적으로 재배구조를 조정함.

□ 정부의 정책 방향

- 정부는 농업 지원정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농업 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노동생산력을 높임.
- 정부는 주요 식량작물과 유지작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재배 의욕을 높이고 식량작물과 유지작물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함.
-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화학비료시장을 안정시킴. 즉, 수입 조절, 비축 관리, 유통 관리, 시장 관리감독 등의 수단을 통해 화학비료 공급을 보장하고 시장을 안정시킴.
- 농산물 정보서비스체계를 구축함. 농산물 생산, 유통, 수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가로 하여금 수요가 많고 리스크가 적으며 수익성이 높은 농산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함.

□ 시사점

- 중국 정부는 농민의 생산 의욕 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 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중앙재정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규모는 해마다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농민 생산 의욕 증진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그 성과는 식량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량 증가로 나타남. 한편 이와 같은 농산물 공급 증가는 시장가격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시장가격 하락은 곧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짐. 특히 2009년 재취업을 포기한 다수의 농민공이 다시 농업부문에 종사할 경우, 농산물 공급 증가 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보조금제도와 수매가격 조정을 균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하고 농민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함.

자료출처: 농민신문(2009. 3. 31)